

우리 동네 푸른
이 가게 어때?

싱싱포차 산오징어 활어 장기점

달서구 대명천로 268 / 문의 053-523-5300

더운 여름 '싱싱한 오징어'로 몸보신 어때?

장기동 먹자골목 근처에 있는 맛깔 나는 횟집 '싱싱포차 산오징어 활어'를 소개해 드리려 한다.

내부에 들어서면 탁 트인 넓은 공간과 띄엄띄엄 떨어진 원형 테이블, 높은 천장의 가게를 만날 수 있다. 불어 있지 않는 테이블마다 시원한 에어컨까지 있으니 요즘 더운 날씨에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.

밖에 있는 수족관에 요즘 보기 힘든 오징어 무리를 발견했다. 큰 크기는 아니지만 적당한 크기에 오징어들이 수족관에서 놀고 있다.

B 세트(오징어회+오징어 통 찜)를 시켰다. 메인 안주를 준비하는 동안 나오는 기본 안주들을 보고 안놀랄 수가 없었다.

일단 쥐포 튀김, 양배추샐러드(일명 사라다) 등이 나와서 먹고 있으면 물회(7시 전 방문 시 나온다고 함) 한 사발이 나온다. 그리고 일회용 장갑, 목장갑과 함께 나오는 금방튀긴 옛날 통닭! 횟집에서 고소하고



따듯하게 튀긴 닭을 먹을 수 있다니 한 번 더 놀랐다. 여기에 폭신한 계란찜, 금방 바싹 구워서 나온 김치전 까지….

오징어 먹기 전에 메인 안주들이 다 나온 듯하다. 그리고 왜 가게 간판에 싱싱포차라고 적혀있는지 알게 됐다.

곧이어 나온 오징어 안주! 싱싱한

오징어회에 내장까지 훌러나오는 오징어찜까지 소주를 안 마실 수가 없다. 오징어 철은 잘 모르지만, 오늘 먹은 오징어회는 내가 이제껏 먹어본 오징어 중에 가장 달콤하고 신선한 듯했다. 오징어를 먹는데 웬지 몸보신하는 느낌이 났다.

그 외에 섭어회, 모듬회, 세트 메뉴까지, 구성이 다양하고 좋아 세트

메뉴를 드시는 분이 많은 거 같다. 룸도 있어서 각종 모임 단체 회식도 가능하다.

더위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시원하고 메인 안주와 기본 안주가 다 맛있는 '싱싱포차 산 오징어 활어 장기점'에서 지인들과 하루를 시원하게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

이현수 기자



달서구 청년 웰컴클럽, 범죄예방 교육 참여자 모집

달서구(구청장 이태훈)가 달서구 청년센터에서 지난 10일(수)부터 지역 청년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달서구 청년 웰컴클럽-범죄예방 교육 참여자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.

달서구 청년 웰컴클럽은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분야별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. 8월에는 청년들이 생활 속 범죄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태권도 전문강사와 현직 경찰관의 강의로 범죄예방

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8월 10일(토) '호신술 기초 및 실습', 8월 17일(토) '집안 보안장치 설치와 점검, 야간 안전 귀가 방법 등'에 대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.

7월 10일(수)부터 과정별

20명 선착순 모집지 중이다.

주소나 직장, 학교 소재가 달서구인 18~39세 청년이면 달서구 청년센터 홈페이지 (www.d-youth.or.kr)에서 신청 가능하다. 문의는 달서구 청년센터(053-628-1008)로 하면 된다.

<자료제공: 달서구청>

우리 지역 달서구·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

모든 지면 광고 50% 할인 해드립니다.

문의 : 053)572-6000